



카메라

천상중 1-3 김민하

다녀오겠습니다!

오늘은 놀러 가는 날! 너희를 기억 속에 담기 위해
열심히 내 에너지를 만땅으로 채운다.

와아, 출발한다!

차에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 친구,
힘을 아낄 거라면서 먼저 자는 친구,
간식을 먹는 친구...
너희를 지켜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

드디어 도착했다!

신나하는 너희들의 모습에
딩달아 나도 신난다.

“얘들아 우리 사진 찍자, 사진!”

드디어 내가 나설 차례인가?

“카메라 설치한다? 시간 3초로 설정할게!”

“삼, 이, 일!”

찰각—



활짝 웃고 있는 너희의 모습을
행복해 보이는 너희의 모습을
한없이 밝고 예쁜 너희의 추억을

‘찰칵’ 소리와 함께
내 한눈에 담아낸다.
그리고 내 몸속에 오랫동안 저장해둔다.

너희들의 청춘을 지켜볼 수 있어서
내가 너의 카메라여서
내가 그런 너희들의 청춘을 사진으로 저장해 줄 수 있어서
많이 행복해.

“엄마, 이 카메라 뭐야?”
“너 어렸을 때 놀러 간다고 썼던 거.”

“... 우와, 이 사진 엄청 추억이다... 잘 찍혔네.”